

# 노래하는 대상에 따르는 한문운문의 종류

김 희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형상원천인 인간생활이 풍부해지고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데 따라 문학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다.》

(《김정일선집》 제16권 증보판 333페이지)

문학작품의 형태는 사회력사발전과 함께 다양해졌다.

한문운문은 고대시기나 중세에 리용되던 문학형식이다.

한문운문의 각이한 형식들은 한문운문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반영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중세의 조건에서 나온 한문의 새로운 형식들은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문화생활조건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낡은 형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리용되였다.

한문운문은 반영하는 내용과 쓰는 목적에 따라 시를 한 종류로 하고 사와 부, 악부 그리고 명, 잡과 찬, 송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한문운문은 어떤 대상을 노래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서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한문운문은 운율이 더욱 정교롭게 다듬어지고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면서 발전하였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주로 어떤 대상을 노래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한문운문 특히 시에서 가장 많은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현상을 노래한것이다.

한문의 운문은 노래하는 대상에 따라 영물시, 풍경시, 영사시, 회고시로 나눈다.

무엇보다먼저 한문운문가운데는 구체적인 사물, 다시말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이나 사람들의 생활과 결부된 가장집물이나 도구들을 노래한 영물시가 있다.

영물시는 공허한 대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노래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으나 대체로는 사물 그자체에 대한 노래에 그치고 그것을 인간생활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영물시의 실례로 김려(1766—1821)가 각종 과일과 남새, 꽃, 가장집물 등을 읊은것을 들수 있다.

《만선와잉고》라고 표제하고 쓴 영물시에서는 홍매, 살구, 감, 포도, 석류, 대추, 복숭아 등 과일과 무우, 시금치, 부루, 파 등 남새들 그리고 모란, 장미, 월계, 진달래 등 꽃과 버루, 초대, 연적, 신발, 붓 등 문방구와 기타 물건들을 시에 담았다.

김려는 이러한 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신미년(1811년에 해당함—역자) 봄에 나는 려릉별장으로부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으로 이사하였다. 삼청동집이란 마치고 달팽이껍질같은데 주변에 빈터와 원림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다. 집안살림은 구차하여 한달에 아홉끼를 이어나마나한 형편인데 매양 병세에 차도가 있을 때면 눈에 보이는데로 시로 읊고 종이에 적어놓은것이 많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만선와잉고》속의 영물시들은 앓으면서 심심풀이로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영물시는 대체로 보이는데로 읊은것이여서 특별한 창작적취지가 없으며 따라서 사물 그자체에 대한 소개에 그치였다.

곱게곱게 핀 진달래 천송인가 만송인가  
이른봄 맞이하여 활짝도 피였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조라고 부르지만  
예로부터 그 전신은 두견화라 일러왔네

바람에 하늘하늘 빨간 피를 뿌리는듯

해빛에 비쳐들면 붉은 노을 피어난듯  
이른 저녁 풍겨오는 꽃향기 말고나서  
빚어놓은 진달래술 어서 익기 바라네

작품은 5언률시의 형식으로 진달래를 노래하였다. 진달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는 여러모로 그려보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담겨진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부 영물시들은 인간생활과 동떨어진 사물 그 자체에 대한 형상에 집착하는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만선와잉고》에서 꽃은 5언률시로 읊었지만 과일과 남새는 5언고시로, 각종 기물은 5언절구로 노래하였다.

영물시는 운문으로서의 고시나 절구 등 임의로 리용하였다.

다음으로 한문운문가운데는 산천풍경을 노래한 풍경시가 있다.

평양의 모란봉을 노래하거나 금강산, 묘향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시들은 풍경시에 속한다.

중세에 이루어진 시작품들가운데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많다.

평양의 만경봉을 노래한 홍량호(1724-1802)의 풍경시는 다음과 같다.

대동강기슭으로 모든 시내 흘러드니  
물줄기는 우불구불 무늬를 이루었네  
세가닥 갈라진 땅 서해로 뻗어있고  
높고낮은 못봉우리 하늘우에 솟았는데

여기저기 돛배들은 끊임없이 오고가고  
아득할손 물굽이는 끝간데를 알수 없네  
황학루, 악양루가 좋다고들 말하지만  
우리 나라 천리땅에 이런 경치 또 있을까

작품에서는 평양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보여었다.

여러 강줄기를 모아가지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드는 대동강, 높고낮은 산들과 오고가는 돛배들을 한눈아래로 바라보는 만경대의 경치는 우리 나라에서 으뜸이라고

한 작품에는 시인의 높은 민족적공지가 반영되어있다.

시는 7언률시형태로서 8개의 구, 4개의련으로 이루어지고 련마다 압운을 하였으며 첫째 련의 첫구에도 운을 리용하였다.

옛 문헌들에서 자주 볼수 있는 《8경시》또는 《12경시》들도 대표적인 풍경시이다.

실례로 평양의 8경을 노래한 《8영》에는 예로부터 《평양 8경》으로 유명한 을밀대, 부벽루, 영명사, 보통문과 대동강의 돛배, 애련당의 비, 대성산의 늦가을, 마란의 봄시위를 노래한 조위(1454-1503)와 성현(1439-1504)이 지은 시들이 있다.

이러한 풍경시들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공지와 애착심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난날 봉건사회에서 씌여진 일부 풍경시들에는 인간생활과 동떨어져서 순수 자연경치만을 찬미한것도 있다.

풍경시에는 5언절구, 률시와 함께 비교적 긴 형식의 고체시형태가 있다.

평양 8경을 노래한 조위나 성현의 시는 7언고체시형태였다면 박지원(1737-1805)의 유명한 시 《총석정의 해돋이》는 비교적 긴 7언고체시이다.

다음으로 한문운문가운데는 력사적사건, 사실을 노래한 영사시가 있다.

영사시는 이름그대로 력사를 읊은 시이다.

력사적사건이나 사실들가운데서 의의있고 인식교양적가치가 있는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긴형식의 운문으로 노래하였는데 이러한 시를 영사시라고 한다.

리규보(1168-1241)가 쓴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은 대표적인 영사시이다.

리규보는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었다.

그에 의하면 고려시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공적을 이야기할줄 알았다. 그속에는 물론 신비

화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1193년(계축년) 4월이전에 편찬되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인 구 《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거기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것보다 더 황홀하고 신비로운 사실이 많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성스러우며 주몽왕이 거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거기서 감흥을 받은 시인은 궁지높은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시를 지었다.

이처럼 영사시는 지나간 역사적사실이나 사건에서 의의있는것, 반드시 알아야 할것을 후세에 전하려는 목적에서 창작하는 작품이다.

《동명왕편》은 장편으로 된 서사시로서 5언고체시이다.

영사시는 문학작품인것만큼 사실을 그대로 라렬하는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동명왕편》에서는 고구려의 역사, 동명왕의 사적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한 시인의 강렬한 흥분을 높은 민족적궁지속에 노래하였다.

《동명왕편》은 특히 작품에서 노래한 역사적사실이 진실하다는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작품의 소재로 얻은 구《삼국사》의 원문을 해당한 시어, 시구마다 주해로 첨부해놓았다.

영사시는 이처럼 필자의 창작적의도에 따라 선택된 역사적사건과 사실을 소재로 하여 씌여진다.

고려시기의 문인인 리승휴(1224-1300)가 1287년에 창작한 《제왕운기》도 대표적인 영사시의 하나이다.

《제왕운기》의 진정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역사를 정확히 서술하여 당시의 통치자였던 충렬왕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부터 《제왕운기》를 창작하였다.

여기에서 리승휴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후기신라말까지는 7언고체시형식으로 서술하고 고려시기는 5언고체시형식으

로 기록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서술하는데서 리용한 자료를 서문형식으로 이렇게 썼다.

《삼가 나라의 역사에 근거하면서 각 본기들과 수이전에 올라있는것을 리용하였고 요순이래 경전자사들을 참고하였다.

들뜬 말은 없애고 바른 리치만을 취하여 그 사실을 펴서 노래하여 일어나고 멸망한 년대를 밝히었다.》

《제왕운기》는 우리 나라의 역사 특히 여러 나라들의 흥망의 년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정사와 야사들, 이웃나라들의 여러 문헌자료들을 참고하여 운문형식으로 씌여졌다.

역사를 노래하면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서술하지 못하고 주로 봉건군주들이 나라를 세우고 멸망한 년대만을 밝히는데 힘을 들인것은 시인의 계급적립장과 세계관, 특히는 《운기》의 창작목적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역사를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형식에서 운문형태를 리용한것은 우리 나라 영사시창작경향을 보여주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영사시는 노래하는 대상이 역사일뿐 운문으로서의 형태에서는 고유한 특성이 없다.

다음으로 한문운문가운데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서 환기되는 감정정서를 노래하는 회고시가 있다.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시들에는 악부시와 영사시도 있다.

악부시에도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노래한것이 있으며 영사시에도 역사를 대상으로 창작한 작품이 있다.

악부시나 영사시가 회고시와 구별되는것은 대상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역사적사건,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씌여진 한문운문에서 그것이 악부의 형태로 되는가, 회고시형태로 되는가 하는것은 예술적으로 형상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

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지는 문제이다.

악부시는 지나간 역사적사건, 사실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내용을 꾸민다면 영사시는 지나간 역사를 정확히 리해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인식교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전개한다.

그러나 회고시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또는 인물의 활동에서 받아안게 되는 시인의 감정을 노래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대상을 노래한 한문운문에서 악부시와 회고시가 구별될뿐 아니라 회고시와 영사시가 명백히 차이난다.

고란사 옛 가람에 고란이 자라나서  
란초꽃 란초잎 달빛에 나뭇기네  
산새도 나라 망한 옛 원한을 아는지  
란초핀 언덕에서 피 토할듯 우누나

《부여회고》라는 제목으로 된 7언절구인 이 작품은 백제의 수도 부여에서 강언덕에 저절로 자라난 란초를 보면서 부여의 역사를 회고하고있다.

시에서는 백제의 역사와 멸망에서 교훈을 찾거나 경계하여야 할 사실을 노래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에서 받아안게 되는 시인의 감정, 정서를 노래하였을뿐이다.

이처럼 회고시는 옛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느끼는 시인의 감정을 정서적여운이 짙게 노래할따름이다.

영사시가 대체로 서사시라면 회고시는 전적으로 서정시이다.

물론 일부 회고시들은 서사적인 내용으로 안받침되어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시인이 해당 사건과 사실에서 받은 강한 감정정서를 승화시키는것으로 작품이 결속된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대표적인 회

고시로서는 실학과 학자 류득풍(1748-?)의 《이십일도회고시》를 들수 있다.

《이십일도회고시》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몇가지 사실 특히는 봉건국가들의 정치적중심지들을 두루 돌아보면서 느낀 감정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서는 평양, 부여, 경주, 김해 등 16개 지역의 유적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결부시켜 노래하였다.

모두 43편으로 이루어진 《이십일도회고시》에서 한편을 실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활을 들고 열아홉해 세상을 횡행하던  
보배로운 기린마 하늘우로 올랐으니  
거룩할손 그 기상 천년세월 전해오나  
말을 몰던 구슬채찍 무덤속에 사라졌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업적을 회고하여 읊은 회고시에서는 머리글로 고전문헌들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건국과정을 해설한 다음 5언절구형태의 시를 주고나서 다시 주해로 《보배로운 기린마》, 《구슬채찍》에 대하여 설명하여 동명왕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긍정하고 평양주변에 있는 유적들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회고시는 역사적사건, 사실들을 돌이켜보면서 받은 시인의 감정, 정서를 노래한다.

《이십일도회고시》에서는 시인의 과학적 안목이 부족하였던탓에 역사적사실을 잘못 리해하고 노래한것도 있다.

그러나 《이십일도회고시》는 한문운문의 한 종류로서의 회고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처럼 한문운문은 노래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각이하게 나눌수 있다.